



삼화인쇄(주) 박상윤조장

‘근로자의 날’ 산업포장 받아

노사화합 앞장 양장분야 최고기술 보유

19

85년 삼화인쇄에 입사, 제책
부서에서 근무해 오고 있는
박상윤조장은 양장분야 국내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회

생활을 삼화인쇄에서 시작해 삼화맨으로, 제책맨
으로 18년째 외길을 걸어오고 있다.

“국내 최고의 인쇄회사인 삼화인쇄에 근무한다
는 자부심으로 후회없이 일해 오고 있으며 회사
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박조
장은 “앞으로도 양장분야의 기술 개발을 위해 최
선을 다할 계획” 이란다.

유용근제책부장은 “박조장은 항상 술선수범하
며 책임감이 강해 우리 회사가 제책분야에서 최
고의 기술력을 인정받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노동
조합 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노사화합에 앞장서
는 모범직원” 이라고 말했다.

박조장은 1987년 사회적으로 노사갈등이 심각
해지면서 회사가 어려워지자 노사가 함께 사는
길은 ‘생산성향상 뿐’ 이라는 소신을 갖고 사원
들을 설득하는데 앞장서 회사가 어려움을 극복하
는데 기여했다. 노사화합에 적극적인 박조장은
노조사무장을 8년째 역임하고 있다.

특히 박조장은 근로자의 건전한 마음과 건강을
위해 등산 및 낚시회, 볼링과 탁구
등 친목서클을 운영하고 있고 불의
의 사고로 고통받는 사내 상해자를
돕기 위한 ‘근로자 한마음 한 뜻 모
으기 운동’ 을 주도하고 있다.

자신이 입사할 무렵인 1980년대
초반에는 인쇄업체, 특히 삼화인쇄
에 입사하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엔
젊은이들이 인쇄업체에 입사를 꺼
리는 풍조를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
는 박조장은 그동안 수많은 봉책을

해 왔지만 다이아나비 추모집과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전기, 포드사 포드북을 만들어 수출한 것
이 가장 기억에 남는단다. 박상윤조장은 충남 홍
성 출신으로 2남을 두고 있다.

한편 삼화인쇄(주)는 이번 박상윤조장의 산업
포장 수훈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이광주노조위
원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수훈 하는 영예를 얻은
바 있다.

박상윤(42세) 삼화인쇄(주) 제책부조장이 4월30일 과천정부
종합 청사에서 열린 2003년도 ‘근로자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포장을 받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27명이 각종 훈장,
28명이 포장, 71명이 대통령표창, 70명이 국무총리표창,
168명이 노동부장관 표창을 각각 받았다.



◆ 수상후에 박상윤 조장의 일터에서 소병호 상무(왼쪽)와 유용근 제책부장과 함께.